

지역 소식통

정읍시, 25일까지 효실천
기여 단체 등 추천 받아

정읍시가 제5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효 실천 노인복지 기여 기관·단체에 대한 유공자를 추천받아 표창한다.

이번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은 시민들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표창 모집 부분은 효행자(일반, 효행 청소년), 장한 어버이, 효 실천 노인복지 기여 기관·단체 총 3개 분야로 효행자 부문은 일반부문(만 20세 이상)과 청소년 부문(만 20세 미만)으로 나뉜다.

효행 일반부문은 부모 등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청소년 부문은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감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가 대상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귀농·귀촌 시책
농촌서 한달 살기 시작

고창군이 귀농귀촌 특수시책으로 펼쳐는 귀농 농촌에서 한달 살기가 시작됐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심원면 사들마을에서 시작됐다.

고창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도시의 동(洞)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마을 멘토와 함께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지역 일자리 체험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거주시설 연수비(월 3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래가 많아 붙여진 사들마을은 올해 '치유자원 농촌체험관광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자연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사들마을은 귀농형 중 재배품목 실습형으로, 고추, 블루베리, 복분자 등 지역의 대표작물에 대한 영농체계를 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친환경 고창 쌀 전문생산'

고창일반산단, 고품질 쌀 가공·건조시설 준공

국내 최고 식품전문 산단을 목표로 한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 명품 고창 쌀을 생산하는 가공·건조시설이 들어섰다.

19일 한결영농조합법인 은 이날 오전 고창일반산단 현장에서 '고품질 쌀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문구 농협중앙회 고창군 지부장 및 농협장, 고영완 고창경찰서장, 농업인이 참석했다.

한결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농림축



산식품부 '고품질 쌀유통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최첨단 고품질 쌀 가공시설(2165㎡)과 건조·저장시설(1310㎡)을 신축하게 됐다.

시설 구축이 완료되면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전문적으로 가

공해 고창 쌀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벼 생산·건조·보관·가공·유통 등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학교급식과 수도권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고품질 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고창군 전체 쌀값의 동반상승을 유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고창농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병행해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시민 정읍 정착의 요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총사업비 26억원 투입, 생활주택 10가구 실습농장 10개소 등 조성... 25일까지 입교자 모집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읍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구룡동 35-10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1ha 면적에 생활동 8동 10가구, 농기구 공동창고 1동, 실습농장 10구획의 시설 규모로 조성됐다.

가족 실습농장에 거주하는 입교자는 8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에서 영농 체험과 실용 교육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 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가족 실습농장 거주시설에 입주해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읍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영농체험교육과 실용 교육을 이수한

입교생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

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에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4차 접종 본격 시작

정읍시가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발생 방지와 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시는 질병관리청이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당초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했던 4차 접종을 60대 이상의 연령층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

층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자다.

3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 희망 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접종하지만,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방법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18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https://rcvt2.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539-7896~8)에서 할 수 있으며, 접종일은 25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당일 접종은 의료기관이 주 3일 요일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선화 를 통해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을고창'과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각각 202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을 수상했다.

'높을고창' · '청보리밭 축제'

고창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 생태관광 축제 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을고창'과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각각 202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을 수상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높을고창'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

으로, '청보리밭 축제'가 생태관광 축제 부문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 주최,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후원했다.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 품질, 충성도 등에 대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브랜드 선정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높을고창'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원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고당도, 고신뢰 농산물 의미를

담고 있다. 브랜드 사용기준도 농촌진흥청 탐과체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 엄격한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해 상위 10% 정도의 농산물만 유통시켜 농가의 고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7개 품목(수박, 멜론, 친환경쌀, 고추, 고구마, 딸기, 지주식 김 등) 14개 단체가 사용중이다.

'청보리밭축제는 올해로 18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경관축제의 효시다. 매년 5월 한 달 동안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대 약 100만㎡의 땅에서 열린다. 2008년 처음 개최한 이래로 해마다 국내각지에서 50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축제기간에는 보리밭 사잇길 걷기, 보리파티 불기, 민속놀이 등의 체험행사와 예술공연, 보리 음식 맛보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유채꽃 · 수선화 만개

부안군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봄소식을 알리는 유채꽃과 수선화 등 셋 노란 봄꽃들이 만개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훼단지외 포함해 광활한 갯벌생태공원 곳곳에는 유채꽃과 수선화, 튼린, 무스카디 등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러 손짓하듯 곱소만 랍사르 습지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일렁이며 그 앙갯짓은 새떼들을 뽐내고 있다.

'병랑 · 쾌활'의 꽃말을 가진 유채꽃과 '사랑해주세요'라는 꽃말의 노란색 수선화가 가득 피어있는 갯벌생태



공원에서는 봄꽃 구경 이외에도 수상 레저체험(생태보트, 수상자전거, 카약)과 갯벌생태관 관광 각종 실내체험들이 마련돼 있어 상춘객들이 부담 없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나절 코스 나들이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